

## 시청자위원회 회의록(2021년 8월)

\* 서면 제출일 : 2021. 8. 18.(수)

\* 총원 15명 중 9명 참여

\* 참여 위원 : 김수형, 김순정, 김유선, 류한호, 양초롱,정은진, 최영호, 최정옥, 한문철(9명)

\* 시청자위원회의 의결로 2021년 8월 시청자위원회 월례회의는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대면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 의견 제출로 대신함

### □ 김수형 위원

-광주MBC가 기획하는 TV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럽습니다. 특히 <오매 전라도>나 <얼씨구당>처럼 지역 특색에 맞춰 제작하는 프로그램은 흥미와 정보전달 측면에서 매우 훌륭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광주시가 추구하는 “인공지능중심도시”와 관련한 뉴스 보도나 홍보, 시사프로그램이 좀 더 확대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광주시가 중심이 되어 광주의 산업구조를 인공지능기반 산업으로 탈바꿈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광주시민들이 공감하고 동참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정보가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 김순정 위원

-8시 뉴스 방송 중 서울 MBC 뉴스가 진행을 하다 광주MBC로 넘어오는 과정이 매번 다르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날은 앞, 뒷부분 앵커와 스포츠 캐스터의 진행이 둘 다 끊겨 버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날은 화면의 연결 상황이 고르지 않은 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광주MBC 뉴스가 연결될 때 중간 광고가 연결되었을 경우 좀 더 뉴스의 진행이 매끄럽고 안정돼 보였습니다. 8시 뉴스는 중요한 메인 뉴스입니다. 서울 MBC 뉴스의 한 부분으로 광주MBC 뉴스가 진행되는 것이 아닌 독립적이고 주제적인 지역방송의 위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몇 초로 지나가는 짧은 순간이지만 뉴스의 시작과 끝은 시청자들에게는 뉴스에 대한 신뢰와 철학을 동시에 갖게 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시간을 맞추어 운용하는 것이 매번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지역민에게 신뢰받는 방송이 되기 위해 이 부분을 좀 더 신경써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 김유선 위원

-7월 22일 <핑크피쉬> : 한국에서 한 걸음 더 - 홍어음식의 재발견

홍어를 가지고 우리나라 셰프들이 외국인들에게 다양한 요리를 선보이는 내용이었습니다.

니다. 홍어는 한국에서도 호불호가 나누어지는 음식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각종 조리법과 향신료들을 통하여 다양한 홍어요리가 펼쳐지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홍어를 접하는 셰프들도 최선을 다하고 홍어요리가 극대칭찬을 받는 내용이었습니다. 홍어의 부담감을 조명하는 부분, 홍어요리의 재해석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셰프들의 모습들을 인상 깊게 봤습니다.

언어, 문화, 생활방식 등 서로 달라 소통하기 힘들지만 여전히 좋은 음식은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매우 인상적인 내용이었습니다.

-8월 5일 <핑크피쉬> : 홍어요리의 변신

진정한 홍어의 고수는 세월의 맛을 알 때 홍어의 맛, 진미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지역은 다르지만 새로운 홍어라는 식자재를 통하여 다양한 요리를 선보이고 도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홍어는 숙성된 시간을 통하여 가지고 있는 향이 매우 강합니다. 그 특유의 향 때문에 사람들은 홍어에 대한 많은 거부감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이번 회차에선 홍어의 특성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편견”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바로 홍어가 누군가에게는 차별과 혐오의 대상 음식이 되었던 거죠! 게스트로 나온 출연자를 통하여 피부색이 달라서 주변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불편함과 여성 셰프가 되기까지 많은 편견과 차별에 맞서며 지금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그 편견과 시선을 뛰어넘기 위해 용기가 필요했던 거였습니다. 바로 인간의 “정체성”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나는 얼마나 많은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며 수많은 의식과 편견에 맞서며 노력하였는지 스스로를 되돌아보았던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함이 있습니다. 홍어라는 주제와 식재료를 통하여 다양성에 대한 것,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새롭게 감수성을 느끼게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총평 : 홍어의 주제를 통하여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고유성으로 가지고 있는 특색은 특수함이 아니라 특별함이라는 것을 느끼게 했던 전반적으로 잘 조화롭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 류한호 위원장

1. 민주당 대선후보 공약 비교 보도(8.16)

-8월 16일부터 진행된 민주당 대선후보 공약 분석 비교 보도는 바람직함. 한국언론의 선거 보도는 정책 보도가 부족하고 후보 간 지지도 우열에 초점을 맞추는 경마식 보도가 주류를 이룬다는 한계를 가짐. 그러나 이번 광주MBC 선거 관련 보도는 그 한계에 구속되지 않고 양극화 해소와 부동산정책 등 이슈를 중심으로 후보자들의 정책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양질의 선거 보도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다만 보도에서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정책을 리포트와 자막으로만 보여줬다는 한계를 지님. 후보자들이

제시한 정책들을 표로 보여주고, 후보자 간 정책의 차이점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줬다면 더 좋았을 것.

## 2. <윤근수의 시사본색>(7.18/7.25/8.1)

-7월 18일부터 3회에 걸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을 초청하여 대담을 벌인 것은 상당히 큰 기획. 후보자 1인당 25분 정도씩을 할당하여 출마 배경과 비전, 정책들을 폭넓고 깊게 들어봄으로써 후보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되었음.

## 3. 프로그램에 관하여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친절한 홈페이지가 필요함

<오매 전라도>, <윤근수의 시사본색> 등을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 할 때 프로그램에 들어 있는 각 꼭지에 관한 정보를 요약하여(또는 소재목만이라도) 보기 쉽게 제시할 것을 권고함

## □ 양초롱 위원

-코로나와 연일 무더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의견은 채널 방향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소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무등산을 사랑하자 캠페인]의 목적과 방향성 : 무등산은 지역의 상징이자, 현대 사회에서 인간과 대면해야 할 주요 관계 대상입니다: '자연' 따라서 '무등산'이라는 상징적인 매개물을 통해 환경, 기후, 실천 운동, 대상(자연, 동물 등)에 대한 배려 등을 의미하는 캠페인으로 확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현재 도시 개발과 관련된 여러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고민해보면, 오늘날 주요 방향은 도시 개발과 문화 산업, AI 지원 투자 등 도시 개발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문제가 도시 정책과 문화 투자와의 관계에서도 자행됩니다. 보도의 집중성과 확장성을 통해 도시 개발이 펼치는 다양한 영역을 섭렵하는 보도로 확장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정은진 위원

-기후 위기, 현재적 상황 진단 + 대응 위한 시민실천운동 전개 캠페인(?)

### ① 1.5℃ 상승의 의미

- 2020년 현재, 이미 1.2℃ 상승,
- 2021년 현재, 우리에게 남은 기온상승폭은 0.3℃일 뿐

### ② 광주 기후 위기 대응 목표의 의미

- '2045 탄소중립', 그 의미는?
  - 위 목표 실현하려면, 얼마나 많은 탄소량을 줄여가야 하는가?
  - 위 목표 실현 위한 광주시의 장단기계획은 어떻게 설계돼 있는가?
- '시민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실천운동'은 어떻게 전개해야 할까?

• 건물/ 수송/ 자원순환(제로 웨이스트)/ 채식 등 부문에서 실천운동 펼치는 사람들 활동상 소개

• 市와 기초단체의 제도적 뒷받침 선진사례(국내외) 소개 + 광주시의 개선방향 제시

- '2045 에너지자립' 향한 장단기계획은 어떻게 설계돼 있는가?

• 태양광 vs 연료전지 = ??

• 2021년 9월말 발표 예정인 '2045 광주에너지자립' 2.0 버전 내용 검토

: 2020년, '태양광:연료전지=23:77'로 과도하게 높았던 연료전지 비중 얼마나 낮췄나?

LNG(천연가스)에서 추출하는 그레이수소 문제 어떻게 해결?

2035년 그린수소 100% 전환 계획, 가능한가? 어떻게??

- '내쓰전 내만쓰'(내가쓰는전기는 내가만들어쓰다) 캠페인 전개

• 공공시설 유희부지/ 마을 공동시설/ 단독주택/ 공동주택 옥상+배란다태양광 등

## □ 최영호 위원

-<오매 전라도>(8. 9(월) 양궁 금맥! 광주시 양궁의 비결

최근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도쿄올림픽, 그중에서도 3관왕이라는 대기록으로 국민에게 기쁨을 선사하였던 여자양궁의 핵심이자 광주 출신 안산 선수의 이야기를 도입부에 배치함으로써 우리 지역 시청자들의 이목을 효과적으로 집중시켰다.

광주양궁협회 실무자를 통해 광주의 선수 육성현황과 과거 배출된 양궁 전설들을 알리며, 실제 경기에서 빛났던 양궁선수들의 강인한 멘탈의 기초훈련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전한 점은 시청자로 하여금 우리 지역 양궁에 대한 자긍심 공유 및 궁금증 해소를 동시에 이루었다고 생각된다.

더불어 광주 국제 규격 양궁장을 소개하며 전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방문하여 무료로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다는 생활정보를 함께 전하며 유익한 정보전달의 역할에 매우 충실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2025년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등 대회 유치에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 국제적인 행사 유치에 대한 지역민의 공감대 형성의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느꼈다.

다만, 안산 선수 또는 모교 코치 등 현재 광주 양궁의 최전면에 종사하는 분들의 인터뷰가 더해졌다면 더욱 생생한 광주 양궁의 현장감을 시청자분들께 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다소 남는다.

-<황동현의 시선집중>(8. 16(월) 신해빈의 취재현장

지난 2월부터 이어온 전남 영광군 6개 회사 레미콘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권리 확보를 위한 투쟁의 이야기를 알리며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 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모습에 언론의 순기능이 극대화되었다고 생각하며 이에 박수를 보낸다.

현재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건설 장비를 직접 매입하여 개인사업자의 입장으로 회사와 계약을 맺으나 회사의 요구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현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노동법과 관련 제도들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상을 명확히 언급하여 청취자로 하여금 우리 사회가 가진 문제점으로 빠른 몰입을 이끌어 냈다.

그리고 IMF 시기 모든 산업계에서 외주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이에 기존 직고용하던 장비 노동자가 개인사업자인 특수고용노동자로 변화되는 해당 고용 형태의 등장 계기와 필요성을 함께 설명하며 듣는 이로 하여 자칫 사측을 악의 축으로 곡해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중립을 지키는 대화 흐름이 매우 돋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조차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임에 공감하며 이들의 권익 확보를 위해 향후에도 광주MBC가 소시민의 편에서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당부한다.

#### □ 최정욱 위원

-<뉴스투데이>(7.29) 갈 곳 없는 환자들..전남의대 시급하다

아직 의협과 정부 사이의 갈등 (마치 의대가 부족하다는 방송은 성급한 결론)

정부 입장: 의사 수가 부족하니 의대 증원

의협 입장: 의과대학이나 의사 수 부족보다는 중증환자를 치료할 의료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 (저수가, 저비용, 저부담, 고효율의 결과 & 지방환자가 서울로 몰리는 현상과 의료의 질적인 문제임)

-도쿄올림픽 개막식 때 모욕적인 이미지나 자막사용

예) 우크라이나 소개하며 체르노빌 사진

이탈리아 소개할 때 피자, 노르웨이 연어, 영국을 소개할 때 여왕

엘살바도르를 소개할 땐 비트코인, 마셜군도 미국의 핵실험장

-> 한국 소개에 '한때 일본의 식민지'라고 했다면 대부분 시청자는 분노했을 것입니다. 각 국가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으며,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긍정적 이미지를 선택해야 하는데 누가 선택한 건지 무책임해 보입니다.

-2021-07-25 한국올림픽 축구 대표팀과 루마니아 대표팀 경기중

전반전에 루마니아 수비수 마리우스 마린의 자책골로 한국이 1:0으로 이긴 상황으로 전반 종료하였고, 후반 경기 전 중간광고에 '고마워요 마린'이라는 자막

->상대팀을 조롱하는 듯한 자막입니다. 루마니아인이거나 외국인이 봤다면 불쾌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만 시청하는 MBC가 아닙니다.

-광주MBC 홈페이지에 시청자 의견에 대한 Feedback이 부족합니다.

시청자가 의견을 게시해도 답글이 달리지 않고 시정이나 설명도 부족합니다. 최근 <심야괴담회>라는 MBC 본사 방송을 보고 싶어 하는 시청자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광주MBC에서는 무반응인 상태입니다. MBC 본사 방송을 100% 편성하면 방송법 시행령 제50조 6항 위반이기 때문에 (방송법 시행령에 고시되어있는 필수 자체 방송 비율이 필요) 시청자와의 소통을 통해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 □ 한문철 위원

-<오매 전라도> 여성 노동자 인권의 대명사, 김경숙 역사 42주기 추모제(8.11)

매년 8월 11일은 YH무역의 부당한 회사 폐업 조치에 항의하다가 목숨을 잃은 김경숙 열사의 기일임을 알려주며 시작한다. 42주기 추모 행사 관련하여 김경숙 열사 기념사업회 최순영 대표 인터뷰를 통해 추도식 관련 사항과 김경숙 열사의 삶과 김경숙 열사 기념 사업회에서 여성 노동자를 위해 하는 일에 관해서도 알 수 있었다.

최순영 대표는 김경숙 열사 추도식과 관련해서는 코로나 19 상황이 심각함에 따라 비대면으로 추도식을 진행해서 섭섭한 점도 있지만, 전국 회원이 함께할 수 있는 것이 장점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추도식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70년대 노동 운동의 시작은 전태일 열사, 김경숙 열사라고 할 수 있다. 김경숙 열사가 광주에서 태어났지만 일을 하기 위해 서울로 상경해 76년 와이에이치 무역회사에 취직하게 된 것과 나이가 어리지만 정이롭고 인정이 많아서 동료들에게 인기가 있었다는 것, 노동조합 활동을 열심히 했다는 것을 통해 김경숙 열사의 삶에 대해 알 수 있었다.

김경숙 열사가 현재 여성 노동자에게 주는 의미로 한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착취당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노력한 것을 뽑을 수 있다. 김경숙 열사를 기리는 김경숙 상을 통해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이 노력을 지원하는 의미에서 상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올해가 8회째이며 아직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 노동자를 위해 김경숙 추모사업회가 함께 이겨내고자 한다며 인터뷰가 마무리된다.

김경숙 열사의 삶과 김경숙 열사 추모사업회가 현재 안정되지 않는 직장을 가진 여성 노동자들을 돕는 일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전태일 열사뿐 아니라 여성 노동자들을 위해 노력한 김경숙 열사의 삶에 집중한 것이 좋았다. 또한, 지금도 그 마음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리는 좋은 기획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기획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뉴스데스크> 전두환 항소심 3개월 만에 첫 출석...묵묵부담(8.9)

전두환이 3개월 만에 다시 법정에서 선다는 문장으로 뉴스는 시작된다.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에는 불출석했던 전씨가 오늘 나온 것, 발포 명령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묵묵부담한 사실

을 알려준다.

오월 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 전두환에게 사죄하고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했지만, 전두환은 30분가량 진행된 재판이 끝나자 서둘러 광주를 떠났다고 말하며 유불리를 따져가며 재판에 참석하는 전두환의 모습에 5월 유족들의 애통한 마음은 더 타들어 가고 있다고 말하며 뉴스를 마무리한다.

전두환이 법정에 출석한 이유, 발포 명령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 것, 전두환이 자신의 유불리를 따져가며 재판에 참석하는 모습에 5월 유족들의 애통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전두환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이득에 따라 움직이는 태도를 고집했기 때문이다.